

교환학생 수학 보 고 서

파견국가	중국
파견대학	연태대학교
파견기간	24. 02. 28. ~ 24. 12. 29.
프로그램	정규

1. 출국 전 준비사항

가.

연태대학교의 경우 유학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학교 자체에서 사이트를 제공해줍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본 국내 유학생 보험보다 저렴하기도 하고 보험 혜택도 비슷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안내하는대로 가입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비자의 경우 저는 1년 유학생 비자인 X1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맞는 비자 사진이 필요하며 중국 비자 신청 서비스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을 먼저 해야합니다. 한국어가 지원 되지 않고 답해야 하는 문항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나 이 부분에서 꼼꼼히 서류를 작성해야 비자 센터에 가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발급해준 JW201 서류를 필수로 지참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비자 센터에 방문했고 오픈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으나 이미 대기 줄이 있었습니다. 신청하러 갈 때는 시간 여유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는 신청 후 일주일 뒤에 나오며 우편으로 받거나 직접 방문 수령해야 합니다.

연태대학교가 있는 연태에는 평라이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직항 비행기가 있습니다. 주로 동방항공이 운항하고 있으며 가격은 10만원 전후로 나타납니다. 저도 동방항공을 이용하였고 유학생 전용 티켓으로 예매하여 원래는 수하물 23kg 1개인 것을 23kg 2개까지 가능했습니다. 유학생 전용 티켓은 항공권 예매 후 유학생 임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출국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JW201 서류와 X1비자를 제출했습니다.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짐을 챙길 때는 항상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챙기는 편입니다. 크게 의류, 생필품,

학용품, 기타로 나누어 정리해보면 필요한 물건들과 양이 보입니다. 짐을 챙기면서 가장 우려한 부분은 무게입니다. 저는 짐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현지에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은 챙기지 않았고 이불도 사계절 용으로 무겁지 않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 후회했던 것이 있다면 두꺼운 외투를 챙기지 않은 점입니다. 연태는 생각보다 훨씬 추웠기 때문에 장갑이나 목도리 같은 방한 아이템도 필수였습니다.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연태에 도착한 첫 날 학생 1명 당 2명의 도우미 중국인 학생들을 붙여줬는데 양쪽에서 중국어가 들리는데 이해가 안되니 너무 답답했습니다. 단어나 간단한 문장만 겨우 알아듣는 수준이었기에 앞으로 내가 중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귀가 트이는게 느껴졌습니다.

중국의 문화는 한국과 크게 다른 점이 없었기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 불편했던 점이 있다면 중국은 양변기 사용을 꺼려하고 화변기를 대부분 사용해서 학교나 밖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기숙사 화장실은 양변기로 되어있어서 괜찮았습니다.

중국의 물가는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저렴했습니다. 특히 식비가 저렴했습니다. 학생 식당의 경우 평균 15위안 전후로 3000원 안되는 가격에 한끼를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싼 곳은 한국과 비슷한 곳도 많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의류는 한국과 가격이 비슷했으나 타오바오나 알리바바 같은 온라인 쇼핑물은 한국보다 저렴했습니다.

나. 파견 대학

나-1. 공항 - 학교

공항에서 학교까지는 한시간정도 소요됩니다. 학교에서 픽업 날짜를 정해주면 학교 사이트에서 픽업서비스를 신청하여 같은 유학생들과 대절 버스를 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 버스표를 끊어서 오면 되는데 여권으로 신분 인증을 해야하기에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없고 위챗 프로그램으로 인증하여 버스표를 예매해야합니다. 萊山佳世客를 목적지로 선택하면 됩니다. 저스코에서 하차 후 남문까지 도보로 15분정도 소요됩니다.

나-2.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수업은 필수과목 4가지가 자동으로 수강신청 되어있습니다. 수강신청 기간에는

자신이 듣고 싶은 선택 수업만 신청하면 됩니다. HSK 수업이나 서예, 비즈니스 중국어 등의 선택 수업이 있습니다. 필수 수업은 종합, 열독, 듣기, 말하기의 4가지 수업으로 되어있으며 종합 선생님이 반의 담임 선생님 역할을 해주십니다. 종합은 주로 문법 위주의 수업입니다. 문법을 심화적으로 배우고 본문을 통해 학습합니다. 문법 외에도 이를 활용한 작문이나 문제 풀이도 합니다. 열독은 본문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수업입니다. 질문에 답을 하거나 문제를 풉니다. 듣기는 말 그대로 듣기 수업입니다. 교재의 mp3 파일을 듣고 문제를 풀거나 받아쓰기를 합니다. 말하기는 스스로 중국어를 계속 내뱉을 수 있도록 발표나 질문에 답하는 수업을 합니다.

나-3. 기숙사(홈스테이, 쉼어룸 등)

교외에서 사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교 기숙사를 이용합니다, 기숙사는 총 6개의 층으로 되어있고 남녀 층 구분없이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사용합니다, 방은 남향과 북향으로 가격이 다르며 남향이 3600위안으로 400위안 더 비쌉니다. 입주 전 남향 북향을 선택하여 방을 신청할 수 있는데 무조건 남향을 추천드립니다. 북향은 해가 잘 들지 않고 바로 앞에 식당 건물과 쓰레기 처리장이 있어 냄새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사용했느냐에따라 방 컨디션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방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룸메 친구와 함께 열심히 관리하여 기숙사 선생님이 놀랄정도로 깨끗하게 사용했습니다. 기숙사에서 제공해주는 것은 와이파이와 수도입니다. 전기는 각자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1층에서 직접 결제해야 합니다. 100위안정도 충전하면 두 세달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세면대는 온수가 나오지 않고 샤워기의 온수기를 사용해야합니다. 쓰레기는 각 층에 마련된 쓰레기통에 버리면 됩니다. 빨래도 각 층에 마련된 세탁기에서 직접 세탁 후 방에 널면 됩니다. 세탁기가 고장나거나 이물질이 옷에 잔뜩 묻는 경우가 있으니 세탁조 확인 후 세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숙사에 냉장고는 제공되지 않으나 개인적으로 구매 혹은 퇴소한 학생의 것을 물려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나-4. 교내·외 활동

교내 활동으로 5월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과 별로 단체복을 입고 중국 깃발을 흔들며 입장하는데 운동장도 축구장만큼 크고 학생들도 많해보니 한국에선 볼 수 없는 웅장함이 느껴졌습니다. 유학생들은 학교 로고가 들어간 보라색 반팔티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유학생 체육대회는 따로 진행했는데 저는 피구와 배드민턴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배드민턴 경기는 중국인 친구와 짝을 이루어 복식으로 하는 경기였습니다. 저와 짝이 된 중국인 친구는 남자아이로 누구보다 배드민턴에 진심이

있고 경기가 있기 며칠 전부터 만나 같이 연습도 하고 친해졌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실수해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게임에 임하였더니 저희 팀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공을 잘못 칠 때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이건 사과할 일이 아니고 사과할 필요도 없는거라며 加油!하며 응원해주던 친구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이 친구와는 아직도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장난도 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운동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런 활동에 참가하길 추천드립니다.

나-5.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중국에 가서 제일 고생했던 것은 위챗페이나 알리페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류증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 중국 계좌를 바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현금 결제가 되는지 물어보고 결제를 했었습니다. 중국에 간다면 가기 전에 먼저 트래블로그 같은 비자, 마스터카드를 발급거나 다른 해외 결제가 되는 카드를 발급하고 위챗에 등록해보시길 바랍니다. 결제가 되더라도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 혜택이 있는 카드로 발급하는게 좋습니다. 저는 트래블로그 카드를 늦게라도 발급받아 사용했습니다. 편의점이나 몇몇 가게는 카카오페이도 사용 가능하니 중국 은행 계좌에 돈이 부족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저는 공상은행에서 계좌를 발급했는데 교내에는 atm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학교 밖 은행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숙사 비용이나 전기료 등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니 여권과 서류를 들고 은행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연태는 알리 교통카드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烟台公交' 어플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어플에 금액을 충전하고 버스를 탈 때 QR을 열어 스캔 후 탑승하면 됩니다. 여기서 어플을 설치할 때 문제가 있는데 중국 어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계정으로 는 어플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에 들어가서 상단 프로필 클릭 후 국가/지역을 중국 본토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구독중인 앱이 있으면 구독을 해지하거나 iCloud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로그인 한 후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중국은 카카오톡, 네이버 등 대부분의 어플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VPN을 필수로 설치해야합니다. 무료 VPN은 보안 문제도 있지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유료 VPN을 결제하여 사용하셔야합니다. 저는 JLVpn을 사용하였는데 가끔 연결 오류 현상은 있었지만 1년동안 잘 사용했습니다.

연태는 과일 종류도 정말 많고 저렴합니다. 과일을 좋아한다면 연태에 있는 동안 많이 즐기는걸 추천드립니다.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학기 중 휴일을 이용하여 칭다오와 베이징, 텐진에 방문했었습니다. 그 중 베이징 여행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연태에서 베이징까지 비행기가 아닌 기차를 이용하였는데 가격이 저렴하기도 하고 5시간 반동안 기차를 타고 베이징에 가는 경험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기차의 신기한 점은 다음 역에 입점해있는 가게들의 음식을 배달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에 도착하기 전에 어플을 통해 미리 주문을 해놓아야하고 역에 도착하면 좌석으로 직접 배달을 해줍니다. 베이징에서는 대부분 공유자전거를 이용해 돌아다녔습니다. 차가 많아 길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자전거나 지하철 같은 이동 수단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연태 사람들은 친절하고 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중국인들은 대부분 친절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주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친절하고 친구들도 너무 잘해줬습니다. 유학생들을 제외하면 한국인도 많지 않아서 중국어 실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캠퍼스가 예쁘고 조용해서 지내기 좋았습니다. 한없이 낯설었던 곳이 이제는 제2의 고향인 것처럼 편해졌습니다. 연태대학교 교환학생을 생각하고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5. 사진자료(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